



김영언 지휘자

베토벤·브람스·베버 명곡 향연...따뜻한 연말 책임지다

광주시향 '2024 송년음악회' 24일 광주예술의전당 피아노 유영욱·첼로 이정란·바이올린 박지운 등 협연

신비로운 분위기의 '오베른 서곡'부터 브람스가 20년에 걸쳐 완성한 '교향곡 1번'까지.. 연말을 맞아 클래식 걸작들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2024 송년음악회'를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베토벤과 베버, 브람스의 명곡들을 들려주며 피아노 협연에 유영욱, 첼로에 이정란, 바이올린에 박지운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1부는 베버의 '오베른 서곡'으로 막을 올린다. 오베른은 세익스피어 작 '한여름 밤의 꿈'에 등장하는 요정 나라의 왕으로, 그의 요술 나팔은 호른을 통해 재현된다.

베토벤 곡 '삼중 협주곡 C장조'는 세 대 독주 악

기를 사용하는 협주곡이다. 이 곡은 3명의 뛰어난 비르투오소 독주자가 필요한 탓에 실제 공연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비운의 작품'이기도 하다.

존재감이 큰 악기를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베토벤의 고민 흔적이 악보 곳곳에 역력하다. 솔리스트로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운과 첼리스트 이정란, 피아니스트 유영욱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운
 <small>©Kim Jewon</small>



광주시향교향악단이 '2024 송년음악회'를 오는 2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연다. 광주시향의 지난 공연 장면.
 <small>〈광주예술의전당 제공〉</small>

광주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먼저 박지운은 2004년 티보 바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 및 청중상을 석권했으며 이듬해 티보 크레스팽 국제 콩쿠르, 2009년 켈리 자베스 콩쿠르 입상 등에서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였다.

2000년 파블로 카잘스 콩쿠르에서 최고 유망 연주자상을 받은 첼리스트 이정란은 윤이상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현대음악 특별상 등을 수상했다. 그동안 베토벤 첼로 소나타 시리즈와 바흐 무반주 조곡 전곡 연주에 도전하는 등 평단의 주목을 받아 왔다.

피아니스트 유영욱은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스페인 국립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드레스덴 심포

니, 필른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교향악단과 협연해 왔다. 제13회 스페인 산탄데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만장일치 대상을 수상하면서 실력을 증명하는 바 있다.

2부는 브람스 '교향곡 1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그의 교향곡 중 가장 극적인 곡이라 평가받는 작품으로 초연 지휘자 한스 폰 뷔로우는 베토벤('교향곡 9번') 이후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 곡을 '교향곡 10번'으로 명명한 바 있다.

이 곡은 BBC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20대 교향곡' 중 하나로 손꼽히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브람스의 교향곡 중 유일하게 서주가 포함된 1악장으로 시작해 전통적이고 느린 느낌의 2악장, 춤곡

의 느낌이 가미된 3악장으로 이어진다.

끝으로 브람스의 전체 교향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목 중 하나인 4악장은 거대한 소나타 형식에 맞춰 전개된다.

광주시향 김영언 부지휘자는 "올 한 해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인 '교향악 축제', '통영국제음악제', '월드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등에서 활약한 광주시향이 송년 공연을 준비했다"며 "특히 레퍼토리에 있는 '브람스 교향곡 1번' 중 4악장의 따스한 감성이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전당 누리집 및 티켓링크 예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4회 백호임제문학상 수상자로 송경동 시인 선정

송경동(사진) 시인이 제4회 백호임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이며 상금은 2000만원.

나주시 백호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최근 심사회를 열고 제4회 백호임제문학상 수상자를 이같이 발표했다.

본상 심사위원 김기택·나희덕·장석남 시인은 "자본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치열하게 저항해 온 송경동 시인의 시적 여정이 호방한 기상으로 세태에 순응하지 않았던 백호의 시정신과 맞닿아 있는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추모시를 쓰지 않아도 되는 미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다채로운 문체와 유연한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투쟁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송경동 시인은 용산참사, 세월호 등 아픔과 고통이 있는 현대사의 한복판에 빠지지 않고 서 있던 시인운동가다.

보성 출신인 그는 "시는 언어로만 쓰는 게 아니다"라는 정신을 견지해왔으며 2001년 내일을 여는 작가와 실천문학으로 등단했다. 시집 '꽃집', '사소한 물음에 답함',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등을 출간했다.

송 시인은 "그 사이 비상계엄사태가 해결돼 광화문 광장이 아닌 시사식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젊은시인상에는 조성래 시인의 '천국어 사전'(상금 1000만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마산 출신의 조 시인은 첫 시집 '천국어 사전'에서

"누구에게도 건네 본 적이 없는 말들로 가득한 당신의 천국어 사전이 두통해지면 좋겠다"라는 작가의 말을 남겼다.

이번 본상과 젊은시인상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2년 내 발행된 시집을 대상으로 예심과 본심, 최종심을 거쳐 선정했다.

한편 나주 출생 또는 나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나주문인상은 수상작 없음으로 결정됐다. 본상과 젊은시인상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백호문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통받는 타자의 손 맞잡을 사소한 용기

광주극장 '이처럼 사소한...' 상영

영국의 문화평론가 베리 피어스로부터 '십여 년 만에 나온 클래식 키건의 신작이 100여 쪽에 불과한 데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길, 키건은 단어 하나 남비하지 않는 작가니까'라는 평을 받았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영화화됐다.

광주극장은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11일부터 극장에서 선보인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조연연기상)을 비롯해 뉴포트비치 영화제(심사위원상 최우수 촬영) 등을 석권한 작품으로 팀 밀란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1985년 아일랜드의 한 소도시에서 빌 펄름(킬리언 머피 분)은 석탄을 팔며 아내, 다섯 딸과 소박하게 살아간다. 크리스마스를 목전에 둔 어느 날 지역 수녀원에 석탄배달을 간 빌은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며 좌절하게 된다.

아일랜드 원시, 미셸 페어리를 비롯해 클레어 던, 헬렌 비언 등이 출연하며 러닝타임은 총 98분이다. 춥고 시린 겨울을 배경으로 '성탄절이 즐겁지 않은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짙게 그려낸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 스틸컷.

개봉과 맞물려 원작도서 인종 이벤트도 연다. 대표소에 동명의 원작 도서를 인종하는 경우 영화 이미지가 삽입된 굿즈(한팩)를 총 4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는 "영화 속 빌의 '선택'과 '행동'에 응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관객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질 것이다"며 "외면받은 타인의 손을 맞잡을지 외면할지 등 시의적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이다"고 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애란 '이중 하나는 거짓말',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선정

김애란(사진) 작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 선정됐다.

교보문고는 9일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올해 소설가들에게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소설가들에게 추천받은 소설은 모두 91권이다.

김애란 작가는 2017년 당시 단편집 '바깥은 여름'으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올랐는데, 7년이 지난 올해 장편 소설로 다시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독자 외에도 동료 작가들이 김애란의 13년 만의 신작을 기다려왔음을 보여준다.

소설은 익숙한 성장 서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희망을 추구하는 인물들의 분투와 성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김애란 작가는 "이번 소설을 쓰며 어느 때보다 동

료를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런 동료들에게 응원을 받아 무척 기쁩니다. 작가에게 작가의 지지만큼 힘이 되는 건 없지요. 제가 그동안 읽어온 책과 앞으로 읽을 책에 여전히 빛진 마음으로 동시대 작가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2위는 김기태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다. 올해 신동엽 문학상과 동인문학상을 동시에 수상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가의 첫 작품집이다. 치밀한 조사를 토대로 오늘의 현실을 탁월하게 그리며 한편 현실의 문제를 작가 특유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3위에는 첫 소설집을 펴낸 예소연의 '사랑과 결합', 아일랜드 작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차지했으며 4위에는 서유미 작가의 '밤이



영원할 것처럼'이 올랐다.

한편 '2024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은 소설가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소설을 한 권에서 다섯 권까지 추천받아 정리했다. 추천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출간된 소설이며 국내외, 장르는 구분하지 않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의 봄' IPTV 시청자 수 1000% ↑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IPTV에서 관람한 시청자 수가 10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영상관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지난 4일 하루 동안 IPTV(LG U플러스tv, 지니 TV, SK Btv 등)에서 총시청수 115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일 시청수(97건)에 비해 1085%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 봄'은 '12·3 계엄사태' 이후 일간 박스오피스 순위 또한 상승했다. 2·3일 각각 1160회, 970회였던 이용 건수가 4일 1260회, 5일 1000회로 늘었으며 8일 기준 1746회에 달했다.

개봉 1년여가 지났으나 전체 순위에서 3위(4일 기준)를 기록해 함께 순위권에 오른 최신작 '베테랑2', '대도시의 사랑법'과 경쟁을 펼쳤다. 이 같은 역주행은 비상 계엄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총 1300만 관객몰이를 한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권력 찬탈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던 신군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맞섰던 군인들의 충돌을 그린 작품이다.



'서울의 봄' 스틸컷.

최근 '서울의 봄'을 다시 관람했다는 정유림(서구·30) 씨는 "역사적 비극이 재현돼 가슴아팠던 순간, '서울의 봄'을 보며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을 떠올렸다"며 "현실에서 벌어질 일이 오히려 '영화적 현실'보다 더 잔인하고 무겁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의 봄'은 11일 기준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의 TOP10 영화' 2위를 기록했다. 같은 날 티빙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영화 '1987', '택시운전사', '남산의 부장들' 등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 수어해설 영상 서비스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을 QR코드를 통해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을 제작해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문손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와 '전당 건립 아카이브-빛의 숲'.

'문손으로 열린 세계'는 계절품 '문손'을 따라 펼쳐지는 항구도시를 오간 이들이 펼쳐낸 삶과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전당 건립 아카이브-빛의 숲'은 ACC의 재미있는 건축이야기와 공간 특성을 담았다.

이번 수어해설 영상은 ACC가 지난 6월 한국장애인협회광주광역시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 일환

으로 제작됐으며 광주광역시수어교육원의 청각장애인 수어해설사가 제작 및 감수 등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ACC는 지난 5월-10월 청각장애인과 코다가족(CODA: Child Of Deaf Adult, 부모 중 1명 또는 둘 다 청각장애인이거나 보호자가 청각장애인이며 그에 의해 양육된 자녀를 의미) 등 총 250여명을 초청 수어 해설이 함께하는 'ACC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한 바 있다. 또한 매달 진행되는 'ACC 인문강좌'에 수어통역을 제공, 이용객 편의도 돕고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수어해설 영상 서비스 제공을 계기로 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ACC 문화프로그램을 즐겼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ACC는 문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 수어해설 영상 장면.
 <small>〈ACC 제공〉</small>

화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